



오늘 지방선거

광산구청장 후보초청 토론회

광주일보·KBC 공동



5.31 지방선거 현장

세계꽃박람회·공군비행장 이전 공방

◇ 모두 발언

▲전갑길=지역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두겠다. 또 지역 공단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승남=민노당은 도시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달라.

▲이상갑=지난 8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치 행정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잘 사는 광산, 행복한 광산을 만들겠다.

▲김익주=도덕성과 청렴성 검증이 중요하다. 한 일꾼을 선택해야지 당을 보고 찍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

▲송병태=임기 동안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평가받았다. 당선되면 계획된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광주일보와 KBC는 30일 오후 6시부터 열린우리당 이상갑, 민주당 전갑길, 민주노동당 이승남, 무소속 김익주, 무소속 송병태 후보 등 광산구청장 후보를 초청,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계 꽃 박람회 개최,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 등과 관련 후보자들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 이상갑 <열린우리당> 공공도서관 건립 교육도시 구축
- 전갑길 <민주당> 어등산 생태문화관광도시 건설
- 이승남 <민주노동당> 아파트 분양원가 검증위원회 설치
- 김익주 <무소속> 향릉강 보전적·친환경적 개발
- 송병태 <무소속> 초일류 교육도시·기업도시 육성

◇ 상호정책토론

▲이승남=공군비행장을 이전 시키겠다. 정부와 주민이 참여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검증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내집마련을 돕겠다.

▲김익주=민간공동기구인 광주·전남 시민민대추위를 통해서 이전을 추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적 이전 방법이 아니고 운동가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승남=군중동원집회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방부의 이전 결정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가능한 운동을 통해 이전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갑길=어등산, 오진산 등 세계적인 생태문화 관광도시를 건설하고 문화와 함께하는 꽃 박람회를 개최하겠다. 또 생활 밀착형 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의 거리를 쌍암공원과 대산공원에 조성하겠다.

▲송병태=꽃박람회의 재정적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갑길=그동안 광산구청이 주관했던 꽃 박람회 개념과는 다르다. 일회성이 아니라 꽃과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곳을 만들어 관광산업을 통해 세수를 올릴 것이다.

▲김익주=세계 꽃박람회와 연계해서 재정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광산 꽃박람회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 아니냐.

▲전갑길=문화와 융합, 생성하는 방식이다. 음악·문화·연극·디자인·영화와 함께 테마를 형성하는 꽃박람회다. 꽃만 보고 가는 박

람회가 아니다.

▲이상갑=치매노인을 위한 간병인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비 비우체 제도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중복되지 않나.

▲전갑길=정부의 제도만을 가지고 치매노인들의 복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치매노인들을 돌보는 가정에 초점을 맞췄다. 간병인제도를 주기적으로 도입해 가족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김익주=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구정을 구현하겠다. 임대아파

트를 적정분양가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송정리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전갑길=광산구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익주=빛고을 올림픽 스포츠 센터다. 애초 사업비는 수영장 레인 50m를 기준으로 106억원이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125억으로 부풀려 놓고도 결과는 25m짜리 수영장이었다.

▲이승남=향릉강과 송정리 역세권 연계 개발에 대한 계획은.

▲김익주=향릉강 개발은 보전적 개발, 친환경적 개발이 돼야 한

다.

▲송병태=초일류 교육도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도시를 만들겠다.

▲이상갑=교육도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송병태=평생교육 차원이다. 지금 예비도시로 지정받은 상태다. 올해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을 것이다. 일반 주민들의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될 것이다.

▲김익주=광산꽃박람회도 문제가 많은데 국제 꽃박람회를 어떻게 개최한다는 것인가.

▲송병태=올해에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는 말을 들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다.

▲전갑길=송 후보는 38년생 아니냐.

▲송병태=여기는 나이를 묻는 자리가 아니다. 정책토론을 하는 자리다.

▲이상갑=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겠다. 아파트별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교육도시를 구축하겠다. 임대아파트 관련 분쟁에 구청이 적극 개입해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김익주=도서관 건립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지 않다.

▲이상갑=예산을 끌고루 배분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도서관을 짓는 정책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다.

▲전갑길=지금 있는 도서관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상갑=동의한다. 송정시립도서관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승남='방과 후 학교'에 대한 입장은.

▲이상갑=대학입시와 관련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평생 교육은 활용이 적다. 인력풀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내실을 기할 것이다.

/정리=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광주 점자형 공보물 23% 불과

○...5.31 지방선거 광주지역 후보자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한 경우는 전체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선거장에인연대는 30일 기자회견에서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한 후보자는 전체 287명 가운데 67명(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보물에서도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경우가 37%나 됐다"고 지적했다.

위해서는 행정을 알고 국정을 아는 조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태명 후보 노인복지 공약

○...유태명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30일 이번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노인치매전문병원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이날 "동구-의 노인 인구 비율이 5개 구청 중 가장 높다"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 치매 어르신 은빛 관리사업 실시, 노인 일자리 창출 전남 인력 배치,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투표소 116곳 줄어

○...전남지역 투표소가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대폭 감축돼 일부지역 유권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남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남지역 투표소는 881곳으로, 4년전의 997곳에 비해 무려 116곳이 줄었다. 이에 따라 산간·오지마을과 나동 유권자들이 2002년보다 먼거리를 이동해 투표를 해야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농촌인구 감소와 농촌학교 폐교로 인해 투표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축소했다"며 "오지의 경우 선관위에서 버스를 임차해 유권자를 이동시키는 등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당락 관계 없이 상호 협조"

○...이상동 민주당 광주 북구 3선거구(용봉·오치·임동) 광역의원 후보는 30일 "이번 선거 당락에 관계없이 향후에도 광주시와 북구 발전을 위해 서로 협조하자"는 내용의 공개 제안서를 상대 후보인 열린우리당 송태중 후보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안서에서 "시민에 대한 봉사는 비단 공직자만 해야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북구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매진하자"고 말했다.

고사모 지부장 2명 제명

○...고 건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고사모 우민회는 30일 특정 광역단체장 후보를 지지한 지부장 2명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고사모는 열린우리당 조영택 광주시장 후보를 지지한 김광우 광주지부장과 민주당 정균환 전북도지사 후보를 지지한 김하영 전북지부장을 각각 제명했다. 고사모는 "두 사람이 특정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고사모가 특정후보와 결탁한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제명 사유를 밝혔다.

"탈당자 6명뿐 주장은 조작"

○...열린우리당 담양군 당원모임 일동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열린우리당 담양군 당원협의회회의 '탈당자는 6명뿐'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이 조작된 것"이라며 "정확히 105명이 26일자로 전남도당에 집단 탈당계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05명은 또 이날 탈당계 제출과 함께 인증을 받았으며 탈당계는 도당 모국장이 개인적으로 보관 중"이라고 주장했다.

교수 99명 조영택 후보 지지

○...전남대학교 조승현 교수 등 광주지역 8개 대학 99명의 교수들이 "조영택 후보만이 참체된 광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고 조영택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 선대위가 30일 밝혔다.

조 후보 측에 따르면 이들 교수들은 "제자들에게 일자리를 추천하고 싶지만 갈수록 살기 어렵다는 탄식만 가득하다"며 "광주 경제를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거동불편자 선거 관여 고발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거동이 불편한 집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마을 노인 3명의 투표를 대신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광양시 봉강면 이장 A씨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마을 이장 3명은 지난 22일 마을에 사는 거동불편 노인 3명 앞으로 배달된 거소 투표자용 투표용지를 인수해 대신 기표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기표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바다의 날

힐우리병원
TEL: (061) 610-6300

향미재건실주식회사
향미재주주식회사
TEL: 524-8771-3 F: 524-8774